

# 공간정보DB를 활용한 전라남도의 귀농귀촌 동향분석 및 지역 중심지 연구

## A Study on Regional Center and the Trend of Turn to Farming and Returning Home in Jeollanam-do with Using Spatial Information Data

한 다 혁\*  
Han, Da-Hyuck

이 민 석\*\*  
Lee, Min-Seok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and status of baby boomer households and trends of turn to farming and returning home. At the same time, the density analysis of land price increase data, building data, and floating population data was conducted in Jeollanam-do County. The established base areas were superimposed to distinguish the regional centers according to the number of superimposed indicators. It is intended to present manag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ctivation of the center. An area where three bases overlap can be designated as a center activation area, and a place where two regions overlap can be designated as a center semi-activation area. Using the analysis of regional centers at the county level, hierarchies of the centers were classified and manag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ddresses meaningful applicability for regional and medium- and long-term plans.

주요어 : 공간정보DB, 전라남도, 군단위 권역, 중심지 관리 방안, 귀농귀촌

Keywords : Spatial Information DB, Jeollanamdo, County Area, Center Management Measures, Turn to Farming and Returning Hom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미래 농업정책의 변화와 4차 산업의 발달,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 다양한 이유로 귀농·귀촌(귀농귀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귀농귀촌은 주로 도농복합도시 혹은 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 읍·면 단위 지역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입되는 인구에 대비하여 군단위 지역은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기초인프라 및 기초생활시설의 부족으로 정주환경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계획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읍·면 단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중장기적·중심지 입지의 구분·주변 지역과의 광역적 상호보완 등의 관점에서는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군 단위 사업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 군으로 인접한 시·군과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기 힘들어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 구분을 통해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적 권역을 구분하며, 각 권역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권역별 중심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중심지 특성을 활용해 귀농귀촌 세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생활·서비스 시설의 상호연계 방안 및 농촌 중심지를 기반으로한 배후지역 연계 중장기계획·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물리적 범위는 1차적으로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한다. 전라남도는 5개의 시와 17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귀농귀촌과 농촌 중심지 연계를 위한 연구 특성을 반영하고자 2차적으로 새로운 권역을 분류해 제시한다. 새롭게 분류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분석을 실시하고 중심지를 도출하고자 한다<Fig. 1>.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eminseok@jnu.ac.kr)

본 논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2018년)에 수행한 연구용역 내용 일부를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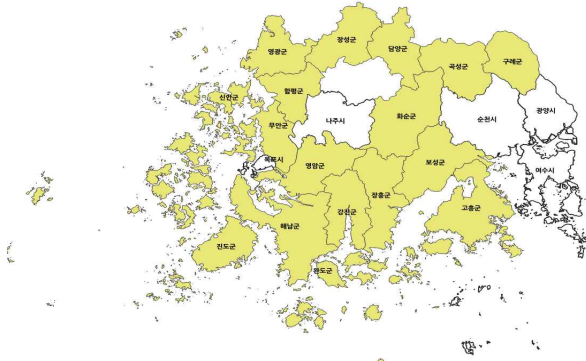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target (Jeollanamdo)

(2)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관련 이론 고찰과 귀농귀촌의 동향분석, 중심지 선정 지표를 활용한 시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농귀촌의 동향분석을 통해 은퇴자 및 타도시 거주민들이 전라남도도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수요와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시물레이션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중심지를 분석하기 위해 행정경계 데이터, 건축물데이터, 지가상승률,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 수집된 데이터의 정리 및 분석과 중심지 분석단위 설정을 위해 전라남도 내 형성된 권역을 살펴보고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권역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로 지가상승률, 신축건축물, 유동인구 데이터의 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밀도 분석을 기반으로 지표별 거점을 설정하고 거점별 중첩분석을 통해 권역별 중심지를 도출하였으며, 중심지 지역을 기반으로 중심지 활성화·준활성화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경계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공간정보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유동인구 데이터는 SKT 기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기준 연도는 2017년을 기준으로 시물레이션을 실시하였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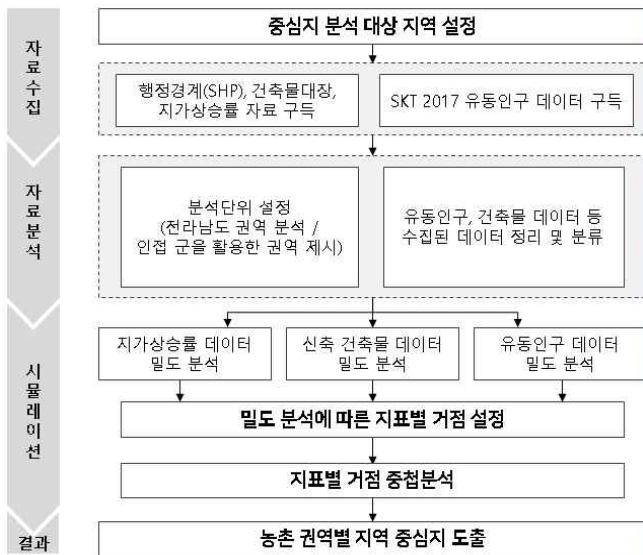


Fig. 2. Research flow chart

2. 이론적 고찰

2.1 용어 정의

(1) 공간정보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국가중점데이터 중 지가상승률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가변동률정보 데이터와 GIS건물통합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지가변동률 정보 데이터는 지역별 지가지수, 지가변동률, 누계지가변동률 정보를 법정동 경계도면과 융복합하여 개방사업단에서 생성한 공간정보로 월1회 갱신된다. GIS건물통합정보 데이터는 연속지적도형정보를 기반으로 건물 공간정보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속성정보를 건물단위로 통합하여 구축한 건물통합정보로 1년 단위로 상시 갱신된다. 위의 2개 데이터는 모두 SHP 형태로 제공된다.<sup>1)</sup>

유동인구 데이터는 이동전화 기지국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50M\*50M의 공간단위 격자 블록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CSV로 제공이 된다.

(2) 귀농귀촌<sup>2)</sup>

귀농귀촌은 최근 전원생활의 선호도 및 생태적 가치의 증대와 첨단 스마트 팜, 6차 산업화, 농촌관광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확보와 젊은 층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주말농장의 확산, 귀농·귀촌과 관련된 언론 및 방송에서의 노출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의학의 발달과 수명의 증대 등을 감안했을 때 귀농귀촌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귀농어귀촌법)을 제정하였다. 귀농귀촌인의 법적 정의로 동단위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 단위 지역으로 이주한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귀농인은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 등록 명부에 등록해야하며,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근무자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는 귀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년 귀농·귀촌 정책은 도시민 일자리 제공,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 주민 확보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다. 2012년에는 ‘귀농 가구 2만호 달성’ 목표를 채택과 동시에 2011년 귀농가구가 1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이에 따른 정책 대응 요구도 증폭되었다. 2016년에는 5년 단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을 수립하면서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의 지원, 지자체에서는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1)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중점데이터, 국토교통부, 2021.07, <http://openapi.nsd.go.kr/nsdi/index.do>.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빅데이터 기반의 은퇴세대 귀농·귀촌 동향분석;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2018. pp9-40.

### (3) 농촌 중심지

농촌 중심지는 대부분 군청소재지, 읍소재지, 면소재지 등에서 배후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간을 연결하는 교통의 결절점이자 개발 거점지역 역할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촌 중심지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 일자리 비율이 높다. 또한 전반적인 교육·의료·금융 시설 및 도서관 등의 문화 복지 시설에 대한 공급 및 이용편의성이 양호하고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농촌중심지에 대한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2003년부터 지방소득음육성사업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기초생활권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생활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농촌 중심지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촌중심지는 단순한 중심지 역할이 아닌 기본기능인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배후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유지, 농촌경제활동 다각화 등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sup>3)</sup>

하지만 기초생활권 포괄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도농 광역연계의 농촌공간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보다는 단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농촌중심지와 중심지체계, 배후 농촌지역과의 광역적 연계와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경우 생활권 내 지역간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고 시와 읍, 시와 면이 각기 개별적으로 협정체결을 통해 권역을 형성하며 정주자립권을 시행하고 있다.<sup>4)</sup>

## 2.2 전라남도 은퇴세대와 귀농귀촌

### (1) 베이비부머 세대

#### ① 베이비부머 세대 현황

베이비부머 세대의 범위에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1955년에서 1961년 혹은 1963년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1955년에서 1963년을 베이비부머 세대로 규정하고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만52세~60세)는 736만 명으로 전체인구인 51,529만 명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만 54세~62세 인구가 7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인 71,779만 명의 1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반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세대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베이비부머 세대 분포 현황

베이비부머 세대는 2015년 기준 경기도에 169만 명(24.3%)으

로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이 142만 명(19.5%), 부산 57만명(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별 인구와 대비하였을 때 부산이 16.2%로 가장 많으며, 강원 15.8%, 경북이 15.2% 순으로 나타난다.

국가통계포털 전라남도 출생자의 현재 거주지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출생한 인구는 총 412만명이며 그 중 베이비부머 세대는 82만 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거주지 기준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수도권에 약 47.5%, 전라남도 25.2%, 광주광역시 12.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는 2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고향인 전라남도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2017년 기준 전입·전출 현황을 시도 간 이동과 시도 내 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각 50.9%, 49.1%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귀농귀촌할 수 있는 지역을 고향이자 거리가 가까운 전라남도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Table 1>.

Table 1. Baby boomer generation regional distribution

구분	구성비 (%)	구성비 (%)	베이비붐 세대(명)	구성비 (%)	
전남 출생자	4,124,195	100	819,187	100	
현재 거주지	수도권(A)	1,635,020	39.7	389,259	47.5
	광주(B)	529,760	12.9	104,604	12.8
	전남(C)	1,437,002	34.8	206,163	25.2
	(A+B+C)	3,601,782	87.4	700,026	85.5

### (2) 전라남도 귀농귀촌 현황

#### ① 귀농인 동향

2017년 기준 전라남도 귀농인 규모는 귀농가구원(귀농인+동반가구원) 기준으로 2,909명이며, 전국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다. 2013-2017년 5년간 귀농인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귀농인 추이는 전국 귀농인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3년 2,791명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5년 3,071명으로 5년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였으나 그 이후 소폭 하락하여 2017년 2,909명이 귀농을 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2017년 기준 전라남도 귀농인의 귀농전 거주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전남으로 귀농한 귀농인구는 총 2,909명으로 광주가 988명으로 3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 581명 20.0%, 경기 455명 15.6% 순으로 나타난다. 2013-2017년간 수도권에서 전라남도로 귀농한 인구는 연평균 약 1,099명이며, 전라남도 귀농인구의 37.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3>.

3) 김정연, 이상준,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개발 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2013. pp.48-50.

4) 김창현, 변필성, 구형수,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의 특성과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2013. pp.127-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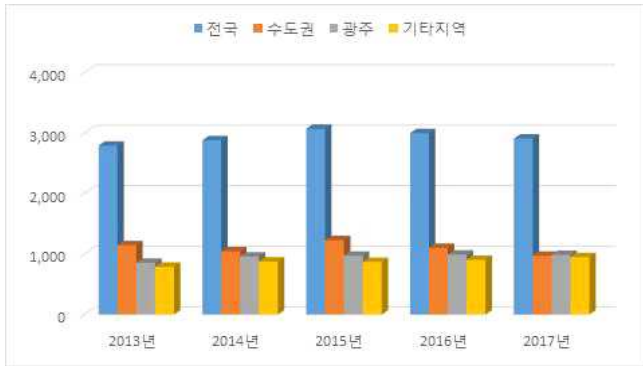


Fig. 3. Residential area before turn to farming to Jeollanam-do

② 귀촌인 동향

2017년 기준 전라남도 귀촌인 추이를 살펴보면 귀촌인(귀촌가구주+동반가구원)이 총 37,398명으로 전국 대비 7.6%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최근 5년간 전라남도 귀촌인은 2013년 40,164명, 2014년에는 44,262명으로 5년중 가장 많았으며, 2017년은 37,69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국 귀촌인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라남도 귀촌인도 향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2017년 기준 전라남도 귀촌인의 귀촌 전 거주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내에서 귀촌한 인원이 13,553명으로 전체의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11,832명 31.4%, 경기도 3,512명 9.3%, 서울특별시 3,503명 9.3% 순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간 수도권에서 전남으로 귀촌한 인구는 연평균 약 8,762명으로 전라남도 전체 귀촌인구의 2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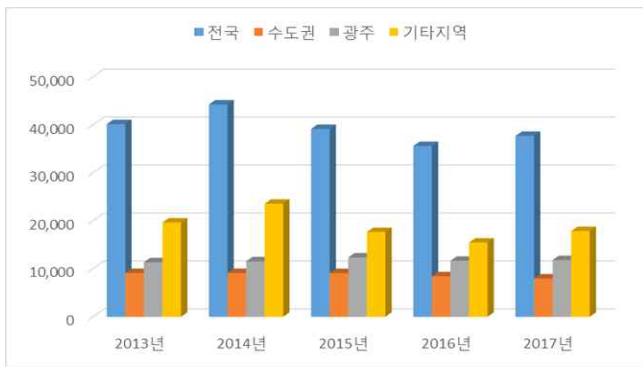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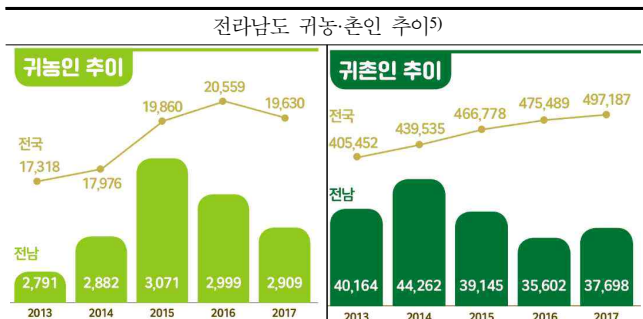


Fig. 4. Residential area before return home to Jeollanam-do

Table 2. Trends in returning to farming and return home in Jeollanam-do



귀농귀촌 동향 분석 결과 전라남도 귀농인과 귀촌인의 5년간 (2013-2017년)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5년을 전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적인 귀농귀촌인의 추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현황과 분포를 살펴보면 향후 은퇴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한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전라남도 지역 농촌지역으로의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귀농귀촌을 대비할 수 있는 중심지 기반의 배후지역 연계 방안과 정주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초 인프라·서비스 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2.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 분야를 3가지로 분류하였다. 1. 공간 빅데이터 연구, 2. 귀농귀촌 관련 연구, 3. 농촌 중심지 관련 연구로 설정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공간 빅데이터 관련 연구는(Kim, 2020)<sup>6)</sup>에서는 농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을 위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 구축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이크로공간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 개발 및 확산을 제안하였다.

귀농귀촌 관련 연구(Koo, 2013)<sup>7)</sup>에서는 우리나라 농촌 유입 인구의 형태인 '귀촌'의 특성에 따른 유형을 설정하였다. 유형 분류를 통해 각 유형이 이주함에 따라 나타나는 농지비율, 유휴지 등 지역의 변화를 예상·예측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농촌중심지 관련 연구(Kim, Lee, 2013)<sup>8)</sup>에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심지 기능별 차별적 접근, 지원 대상지의 구분, 중심지 입지에 따른 차별적 접근과 광역적 생활 서비스의 이용방식 도입 등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Table 3>.

본 연구의 차별성으로는 공간 빅데이터 활용에서는 인구·경제·토지·교통 4가지 주제(인구이동, 농업직불금 수령현황, 유휴부동산 현황, 교통량, 농포 포장 등)의 단위 지역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중심지와 거점을 판단할 수 있는 거시적 데이터를 권역단위로 분석하였다. 귀농귀촌 연구에서는 귀촌 특성 유형화를 통해 나타나는 지역 변화를 유형별로 예상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역 변화가 아닌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포와 전라남도 귀농귀촌 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귀농귀촌인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농촌 중심지 연구에서는 기초생활권 중심지 정비사업 등의 사업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중심지 위계에 적합한 사업 계획과 추진을 제시하였다면, 본

5) 광주전남연구원,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16, 2018.  
 6) 김익희 외 5인,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0. pp.127-130.  
 7) 구지영,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유입과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 장흥군 귀촌을 사례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pp.50-53.  
 8) 김정연, 이상준,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개발 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2013. pp.95-96.



연구에서는 현재 군단위 지역의 현황을 바탕으로 중심지 활성화지역과 준활성화지역을 지정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Table 3. Preceding study review

분야	저자	주요 내용
공간 빅데이터	Kim (2020)	농촌 지역에 적합하고 정책적 요소로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마이크로공간데이터로의 변환과 정보플랫폼 구축 제안
귀농귀촌	Koo (2013)	귀촌의 특성에 따른 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지역이주에 따른 지역변화를 예상·예측 할 수 있다고 제안
농촌 중심지	Kim Lee (2013)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목적, 대상지역, 대상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내용 개편과 개선방향 제안

### 3. 농촌 중심지 분석 방법

#### 3.1 전라남도 시·군단위 지역 권역설정

전라남도는 5개 시 1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크게 광주 권역, 목포신안 권역, 광양만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주 권역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접 시·군은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화순군이 해당된다. 목포신안 권역은 목포시를 중심으로 신안군, 무안군이 해당되며, 광양만권역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가 해당된다<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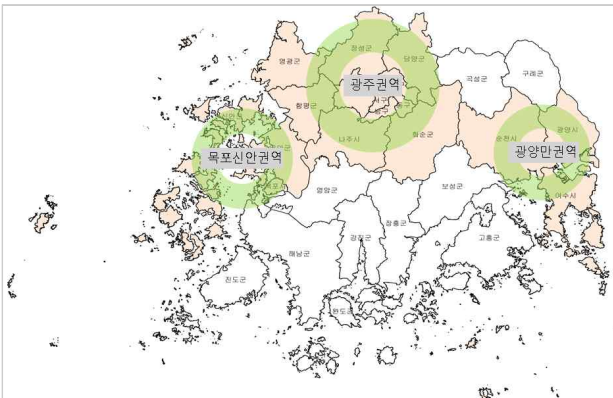


Fig. 5. Previously formed area

기존에 형성된 권역을 제외한 10개 군은 곡성군과 구례군을 제외하고 주로 서해와 남해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쪽에 위치한 군단위 지역에서는 권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전라남도 남쪽에 권역의 중심점을 할 수 있는 도시의 부재를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군의 인접한 지역들을 새로운 권역을 설정하였다.

새롭게 설정된 권역은 서해권역, 남서권역, 남해권역으로 구분된다. 서해권역은 진도군과 해남군이 포함되고 남서권역

은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남해권역은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설정한 권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중심지 도출을 진행하였다 <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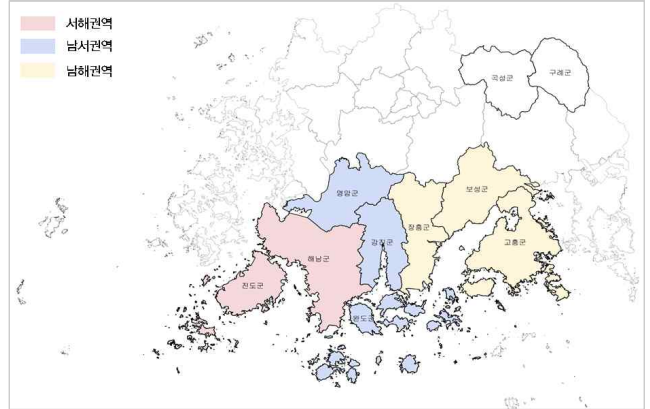


Fig. 6. Newly established area

#### 3.2 권역별 분석항목 및 방법

권역별 중심지 도출을 위해 지가상승률, 신축건축물, 유동인구 등 3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가상승률 지표는 토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접면 등 토지의 특성에 따른 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된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나타내며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나 기존 시점에서부터 활발하게 개발 및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축건축물 지표는 해당지역의 개발 및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며, 신축건축물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최근 지역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유동인구 지표는 통신사 휴대폰 위치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각 지역에 어느 정도로 밀집해있는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활성화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지가상승률, 신축건축물 지표와 비슷하지만 인문·사회적 부분에서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지가상승률은 향후 개발의 가능성, 신축건축물은 현재 개발의 정도, 유동인구는 지역의 활성화 정도를 각각 판단할 수 있다.

3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권역별로 분석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각 지역의 좌표계를 중심으로 밀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권역별 핫스팟을 중심으로 거점지역을 추출하였으며, 각 지표별 거점의 중첩분석을 통해 권역 중심지를 도출하였다.

### 4. 권역별 분석

선정된 3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권역별 현황분석과 지표별, 권역별 주요 거점을 파악하였다. 지가상승률은 녹색에서부터 붉은색으로 표현되며,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지가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축물 밀도는 권역 내 군별 임의의 색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색이 진해질수록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유동인구 밀도는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되며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4.1 서해권역

##### (1) 지가상승률

서해권역 지가상승률은 진도군 진도읍 일대와 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황산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한 지역으로는 진도군 고군면, 지산면과 해남군 화원면, 계곡면 일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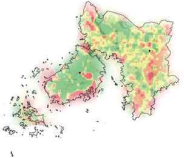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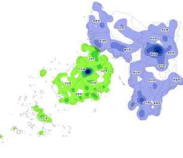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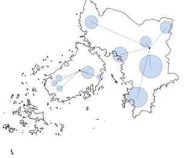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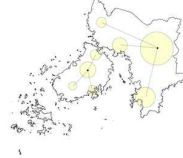

##### (2) 신축건축물

서해권역 신축건축물은 진도군 진도읍과 해남군 해남읍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신축건축물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진도군 임회면, 의신면, 고군면과 해남군 화원면, 황산면, 송지면 일대로 나타났다.

##### (3) 유동인구

서해권역 유동인구 최대 밀집지역은 해남군 해남읍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 지역으로 진도군 진도읍 일대이다. 크게 밀도가 높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지역보다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해남군 문내면, 황산면, 송지면으로 도출되었다<Table 4>.

Table 4. Analysis of the west sea region

지가상승률 현황	신축건축물 밀도 현황	유동인구 밀도 현황
		
지가상승률 주요거점	신축건축물 밀도 주요 거점	유동인구 주요 거점
		

#### 4.2 남서권역

##### (1) 지가상승률

남서권역 지가상승률은 영암군 삼호읍, 금정면과 강진군 강진읍, 완도군 군외면, 완도읍 일대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한 지역으로는 영암군 학산면, 신북면과 강진군 도암면, 성전면, 칠량면, 병영면, 완도군 신지면, 약산면, 노화읍 일대로 나타났다.

##### (2) 신축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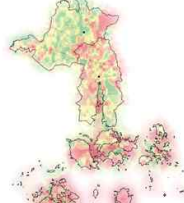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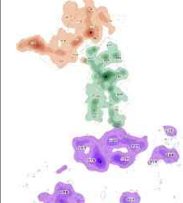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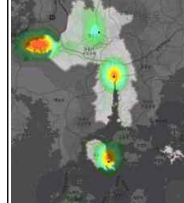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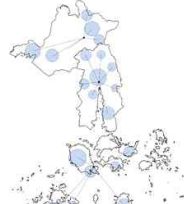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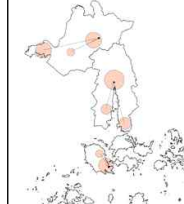
남서권역 신축건축물은 영암군 삼호읍, 영암읍, 강진군 강진

읍, 신천면과 완도군 완도읍, 노화읍 일대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신축건축물 밀도가 높은 지역은 완도군 학산면, 군서면, 신북면과 강진군 작천면, 병영면, 칠량면, 마량면, 완도군 고금면, 약산면, 신지면, 청산면 일대로 나타났다.

##### (3) 유동인구

남서권역 유동인구 최대 밀집지역은 완도군 삼호읍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 지역으로 강진군 강진읍과 완도군 완도읍 일대이다. 세 번째로 유동인구 밀도가 두드러진 곳은 영암군 영암읍이며, 밀도가 높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영암군 서호면, 강진군 도암면, 마량면, 완도군 군외면이다<Table 5>.

Table 5. Analysis of the southwest region

지가상승률 현황	신축건축물 밀도 현황	유동인구 밀도 현황
		
지가상승률 주요거점	신축건축물 밀도 주요 거점	유동인구 주요 거점
		

#### 4.3 남해권역

##### (1) 지가상승률

남해권역 지가상승률은 장흥군 장흥읍, 보성군 별교읍과 고흥군 풍양면, 포두면 일대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승한 지역으로는 장흥군 유치면, 장평면, 대덕읍과 보성군 복내면, 고흥군 금산면, 도덕면, 영남면, 포두면 일대로 나타났다.

##### (2) 신축건축물

남해권역 신축건축물은 장흥군 장흥읍, 보성군 보성읍, 고흥군 동강면, 도화면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신축건축물 밀도가 높은 지역은 장흥군 회진면, 관산읍, 장동면과 보성군 회천면, 울어면, 복내면 일대와 고흥군 고흥읍, 과역면, 도양읍 일대로 나타났다.

##### (3) 유동인구

남해권역 유동인구 최대 밀집지역은 장흥군 장흥읍과 고흥

군 고흥읍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 지역으로 고흥군 도양읍 일대이다. 세 번째로는 보성군 보성읍과 벌교읍 일대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지역보다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장흥군 관산읍, 보성군 등량면, 고흥군 도양읍 일대로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Analysis of the south sea region Status

지가상승률 현황	신축건축물 밀도 현황	유동인구 밀도 현황
지가상승률 주요거점	신축건축물 밀도 주요 거점	유동인구 주요 거점

#### 4.4 권역별 중심지 종합

앞서 실시한 권역별 지표 현황 분석과 도출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지표별 중첩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서해권역

서해권역 주요 거점 중첩지역 분석 결과 3개 거점이 모두 중첩된 지역은 3개로 진도군 진도읍 일대, 해남군 황산면 일대, 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옥천면 일대로 나타났다. 2개 거점이 중첩된 지역은 2개로 해남군 화원면, 해남군 송지면 일대이다 <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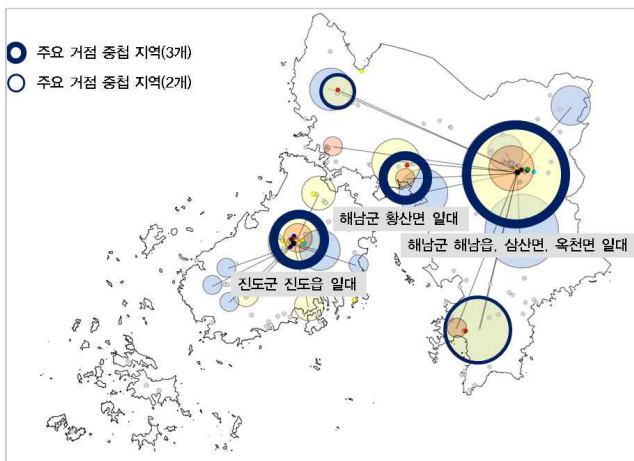


Fig. 7. Comprehensive west sea regional centres

##### (2) 남서권역

남서권역 주요 거점 중첩지역 분석 결과 3개 거점이 모두 중첩된 지역은 4개로 영암군 삼호읍 일대, 영암군 영암읍 일대, 강진군 강진읍 일대, 완도군 완도읍 일대로 나타났다. 영암군 학산면 일대, 강진군 마량면 일대, 완도군 신지면, 약산면 일대 등 4개 지역은 2개 거점이 중첩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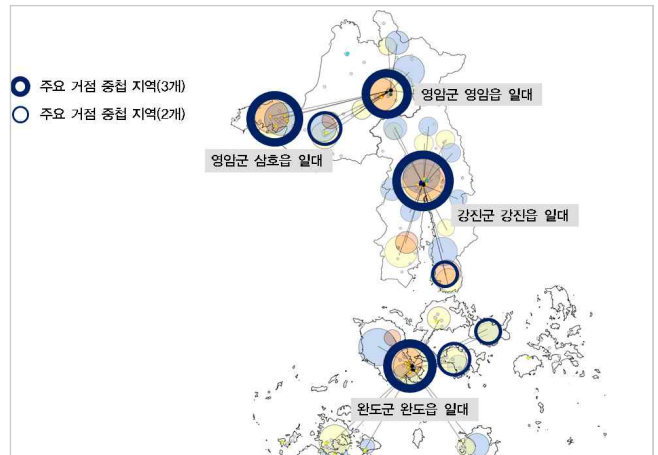


Fig. 8. Comprehensive Southwest Region regional centres

##### (3) 남해권역

남해권역 주요 거점 중첩지역 분석 결과 3개 거점이 모두 중첩된 지역은 2개로 장흥군 장흥읍 일대, 고흥군 도양읍 일대로 나타났다. 보성군 보성읍 일대, 보성군 득량면 일대, 고흥군 고흥읍 일대 등 3개 지역은 2개 거점이 중첩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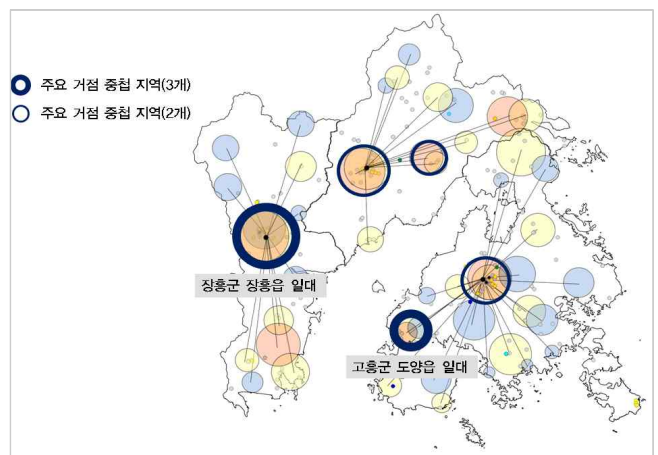


Fig. 9. Comprehensive south sea regional centres

3개 권역 중심지 종합 결과 3개 거점 중첩 지역은 서해권역에서는 3개 지역, 남서권역에서는 4개 지역, 남해권역에서는 2개 지역으로 각각 나타났다. 2개 거점 중첩 지역은 서해권역 2개, 남서권역 4개, 남해권역 3개로 분석되었으며, 중첩 개수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중첩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권역은 남서권

역이 8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서해권역, 남해권역은 각 5개 지역이다<Table 7>.

Table 7. Overlaid analysis comprehensive

구분	거점 중첩지역(개)		내용
서해권역	3개 중첩	3	1. 진도군 진도읍 일대 2. 해남군 황산면 일대 3. 해남군 해남읍 일대
	2개 중첩	2	1. 해남군 화원면 일대 2. 해남군 송지면 일대
남서권역	3개 중첩	4	1. 영암군 삼호읍 일대 2. 영암군 영암읍 일대 3. 강진군 강진읍 일대 4. 완도군 완도읍 일대
	2개 중첩	4	1. 영암군 화산면 일대 2. 강진군 마량면 일대 3. 완도군 신지면 일대 4. 완도군 약산면 일대
남해권역	3개 중첩	2	1. 장흥군 장흥읍 일대 2. 고흥군 도양읍 일대
	2개 중첩	3	1. 보성군 보성읍 일대 2. 보성군 득량면 일대 3. 고흥군 고흥읍 일대

권역 내 3개 거점 중첩지역은 대부분 공공청사 소재지로 나타나며 공공청사 소재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단 혹은 주요 거점 시설 등이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지표의 거점을 모두 중첩시켜 주요 거점이 3개 중첩되는 지역은 중심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며, 2개 지역이 중첩되는 곳은 중심지 준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심지 활성화 지역은 권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개발·관리하며 주변 배후지역과 연계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중심지 준활성화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배후지역의 역할을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중심지 활성화 지역 다음으로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포·현황과 귀농귀촌 동향분석과 동시에 전라남도 군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상승률 데이터, 건축물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의 밀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정된 거점지역을 중첩하여 지표의 중첩정도에 따른 권역별 중심지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2015년 기준 전라남도에서 출생한 인구는 중 베이비부머 세대는 82만 명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수도권에 약 47.5%, 전라남도 25.2%, 광주광역시 12.8%로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수치를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고향인 전라남도로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또한 은퇴 후 귀농귀촌할 수 있는 지역을 고향이자 거리가 가까운 전라남도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수도권과 광주권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을 대비할 수 있는 중심지 기반의 배후지역 연계 방안과 정주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인프라·서비스 시설 등의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전라남도 내 기존에 형성된 광주권역, 목포신안권역, 광양만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새로운 권역설정 결과 서해권역(진도군, 해남군), 남서권역(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남해권역(장흥군, 보성군, 고흥군)으로 구분되었다.

다섯째, 3개 권역 중심지 종합 결과 3개 거점 중첩 지역은 서해권역 3개 지역, 남서권역 4개 지역, 남해권역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개 거점 중첩 지역은 서해권역 2개, 남서권역 4개, 남해권역 3개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주요 거점이 3개 중첩되는 지역은 중심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2개 지역이 중첩되는 곳은 중심지 준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권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개발·관리하며 주변 배후지역과 연계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된 중심지지역을 활용하여 기초자치체에서는 각 거점의 위계와 역할에 따른 연계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군단위 지역 중심지 분석을 활용하여 중심지의 위계를 분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권역별 광역·중장기계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 분석된 권역을 중심으로 중심지 연계를 위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한다면 기초인프라·서비스 시설 등의 지역계획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김익희 외 5인,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0.
2. 김정연, 이상준,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심지 개발 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2013.
3. 김창현, 변필성, 구형수,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의 특성과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2013.
4. 구지영,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유입과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 장흥군 귀촌을 사례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 광주전남연구원,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16, 2018.
6.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빅데이터 기반의 은퇴세대 귀농·귀촌 동향분석: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2018.
7.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중첩데이터, 국토교통부, 2021.07., <http://openapi.nsd.gov.kr/nsdi/index.do>

접 수 일 자 : 2021. 07. 10  
 초 심 안 료 일 자 : 2021. 08. 10  
 재심(1차) 완료일자 : 2021. 08. 18  
 게재 확정 일 자 : 2021. 08. 21